中 조이롱 자동차 한국법인 그린카진흥원에 설립

광주 '차 100만대 조성사업' 탄력 붙나

2020년까지 연 10만대 생산공장 … 국내 인증 통과 관건

지난 3월 광주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투자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광주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국 조이롱(Joylong·九龍) 자동차는 지난 23일 자동차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법인 '조이롱 코리아' 등기절차를 마쳤다.

조이롱 코리아는 자동차 100만대 사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광주 그린카진흥원에 둥지를 틀고 조만간 현판식 등을 할 예정이다.

조이롱 측은 연 10만대 규모 완성차 생산공장을 광주에 설립하고, 202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하기로 지난 3월 광주시와 협약했다.

지역 기업과 협력해 시험·상업용 전기차 자동차 200여 대를 우선 생산하고, 2017년부터는 15~18인승 전기승합차인 E6 차량 2000대를 양산할 계획이다.

조이롱 자동차는 주력 생산 차종이 15~18인승 승합·소형버스라는 점에서 한국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하지 않고 있는 전기 승합·소형버스를 통해 한국 내 틈새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조이롱 차는 오는 2020년까지 광주에 전기승합차 2만대, 다른 차종 8만대 양산공장을 완성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협약 이후 투자 실현 여부와 함께 국내 인증을 통과할만한 기술력을 보유했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끊이지 않았다.

광주시는 윤장현 시장을 중심으로 방문단을 꾸려 지난 4월 중국 양저우(揚州)에 있는 조이롱 자동차 본사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기도 했다.

시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져와 모의 테스트한 결과 인증 기준을 충족했고, 국내 전문가들로부터도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이롱 자동차 생산 차종의 국내 인증 통과가 관건이다.

절차가 순조롭더라도 인증에는 최소 6개월, 차질이 생기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한편 조이롱 코리아는 광주시, CJ대한통운과 업무협약으로 법인 설립 후 첫 공식 행보에 나선다.

조이롱 자동차는 지난 2007년 중국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의 강두구 자동차 산업단지 내에 설립된 중국 신흥 자동차 완성차 회사다. 승합차와 소형버스를 주력 생산 차종으로 하는 완성차 업체로, 4개의 생산라인에서 디젤·가솔린 차량 외에도 5종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에어파워데이' 인파 북적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2016 에어파워데이'를 찾은 시민들이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콘텐츠 전시회 '광주 ACE Fair'

관람객 전년보다 30% 증가 대박 예감

어제 하루만 3만여명 몰려

수출상담건수도 2100여건

국내 최대 문화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2016 광주 ACE Fair(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 in Gwangju)'가 구름 관람객들이 모여들면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따르면 광주 ACE Fair를 찾은 관람객은 지난 24일 현재 4만5000여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료 관람객수는 지난해보다 350% 이상 늘었다.

특히 25일 하루만 3만여명의 관람객들이 찾아 김대중컨벤션센터 개관 이래 하루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입장하는 기록을 세웠다.

광주 ACE Fair측은 폐막일인 이날 관람객까지 포함하면 총 관람객이 6만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사기간 중 해외바이어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수출 상담 건수도 지난해 1800여 건에서 2100여 건으로 늘었고, 상담액은 2억8000만 달러에서 3억달러, 수출 계약 및 MOU 체결은 5건에서 25건으로 증가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 전시한 가상현실(VR) 체험관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각 미디어 이벤트가 성황을 이루면서 성공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신환섭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올해 광주 ACE Fair가 지역민들의 관심 속에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면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최신 콘텐츠와 신기술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들이 성공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개막한 광주 ACE Fair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주관했으며 37개국 430개사가 참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의 상징'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재탄생

내년 3월 리모델링, 2018년 완공 문화전당 연계 공간으로

5·18민주화운동 등 광주 근·현대사와 함께한 금남로 1가 전일빌딩이 새롭게 태어난다.

광주시는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018년 상반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접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한 공간으로 변모한다.

우선 시비(160억원)를 선(先)투입해 건물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조, 전기설비 공사 등을 추진하고 국비를 들여 문화전당 지원시설을, 관광기금으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한다는 복안이다.

공사비 305억원을 비롯해 일부 건물 매입비 53억원, 철거·감리비 30억원 등 42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달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는대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확보여부가 관건이어서 제때 리모델링을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에픽'(EPIC)존으로 정해져 교류센터, 아카이브, 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지난해 하계 유니버시아드 당시 활용한 'EPIC'(Eco·Peace·IT·Culture)의 개념을 'Economy(경제), Positioning(도시 위상 정립), Investment(투자), Culture(문화)'로 확장했다.

1층 일부와 2~3층은 '시민참여존'으로, 공공 전자도서관, 문화센터, 남도관광 홍보센터, 언론박물관 등이 조성된다. 4~7층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존'으로, ICT 기업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곳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거점 공간이다.

8~9층은 '아시아 융복합콘텐츠 개발지원센터존'으로 조성되며, 극장 형태의 홀로그램 상영관, 스튜디오 등이 들어선다.

시는 10층과 옥상을 '아시아 문화전당 관광자원화존'으로 조성해 조망시설, 승강기 등을 갖춘 명소로 가꾸기로 했다. 전일빌딩은 1968년 12월 7층 건물로 준공된 뒤 4차례 증·개축을 거쳐 10층 규모의 현재 모습을 갖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몽골 차기 대통령 후보 엥흐볼드 광주방문 검토

윤장현 시장 초청 … 의료 협력 기대

내년 6월 몽골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미예곰보 엥흐볼드 몽골 국회의장이 광주 방문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의료관광 등 시장 개척을 위해 몽골을 방문중인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23일 오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엥흐볼드 국회의장을 만나 "대학과 병원 등 민간 영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의료 중심으로 교류하며 신뢰를 구축해 왔고, 몽골 협력병원들과 교류하고 신기술을 전수했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해서 광주의 매력을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엥흐볼드 몽골 국회의장은 "17년 전 서울을 방문해 자매결연을 맺은 장본인이 바로 나였다"면서 "도시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광주와 울란바토르시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방문 시기에 맞춰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의 광주를 방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엥흐볼드 국회의장의 광주 방문이 성사될 경우 몽골 정부 측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보건의료 협력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농수산물 1000만달러 美 수출키로

이낙연 지사, 하기환 한남체인 회장 협약 체결

미국을 방문 중인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하기환 한남체인 그룹 회장을 만나 지역 농수산물 1000만 달러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남체인은 앞으로 1년 동안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현지 바이어를 통해 수입한다. 한남체인은 캘리포니아주에 7개 마트를 운영, 연간 1억3천만 달러의 매출액을 자랑하는 유통업체다.

최근 매년 700만~800만 달러 상당의 전남산 농수산물을 수입해 교포 등에게 판매해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로 수입량이 더 늘었다.

하기환 회장은 "앞으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전남산 농수산물을 미국 교민들에게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도지사는 "농어민들이 농수산물 유통보다는 생산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한남체인이 수출 기회를 줘 감사하다"며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협약 후 제43회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에 참석, 축제장에 마련된 전남 농수산물 부스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한인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